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## 일본 주요 손보사 상반기 영업실적 부진

□ 일본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 중 닛세이동화손해보험을 제외한 5사의 상반기 수입 보험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.

- 이는 주요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4월부터 대폭(약 20%) 인하된데 기인함.
-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은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재팬, 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손보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\*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: 미래아홀딩스, 손해보험재팬, 미츠이스미토모해상, 아이오이손보, 니폰코아손해보험, 닛세이동화손해보험

□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은 20-30대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유가상승에 의한 신차판매의 부진이 자동차 수입보험료의 감소에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.

- 또한 자동차의 소형화도 보험계약고의 부진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임.
- 그리고 자동차 비소유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의 보유대수 자체가 줄어 든 것도 수입보험료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.
- 다만, 신상품의 판매에서 호조를 보인 손해보험재팬과 모회사인 일본생명보험과 제휴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한 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함.

□ 화재보험은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, 손해보험재팬,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, 니폰코아 손해보험 4개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됨.

- 여기에는 건축기준법개정에 의한 건축 확인 심사의 엄격화 등으로 인한 주택착공 건수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(산케이뉴스, 10/6)